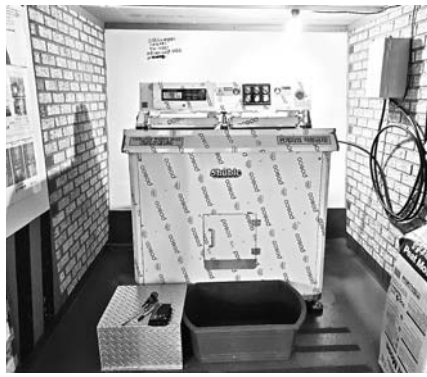


■ 330㎡ 이상 음식점 등 음식물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의무화

비용 부담에 도내 요식업계 강력 반발

미설치시 7월부터 과태료
음식점 2곳중 1곳 미설치
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제주지역 330㎡ 이상 음식점 돌출 한곳 가량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도 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과부하 걸리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체처리시설(감량기)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요식업계의 참여율이 낮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조례’)에 근거해 330㎡ 이상 음식점 등에서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19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면적이 330㎡ 이상인 식품접객업(음식점)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009곳(제주시 603곳, 서귀포시 406곳)은 이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자체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1009곳 중 240곳은 현재까지 미설치 상태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미설치가 129곳인데, 음식점이 121곳(휴업 29곳 제외)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귀포시도 상황이 비슷해 미설치 111곳 중 음식점이 84곳에 달한다.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음식점 381곳 중 205곳이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음식점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상업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감량기를 들여놓을 공간 확보가 쉽지 않고, 설치비의 50%를 행정에서 보조하지만 하루 99kg 처리용량의 자체처리시설 설치비용이 2000만원 정도로 자부담이 1000만원 안팎에 달하는 게 주요 원인이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조례에는 200㎡ 이상 330㎡ 미만의 음식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요식업계의 반발에 제주도는 한발 물러서 이들 음식점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월 하순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까지 마쳐 오는 9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 이상 음식점부터 해당되지만 조례 개정 움직임에 설치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에는 200㎡ 이상 음식점도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돼 있는데, 2층 이상 건물에 위치한 식당의 경우 설치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 관련 민원이 많았다”며 “다량배출사업장별 연간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이 작년에 전년 대비 20%정도 줄어드는 등 사업장의 감량 노력도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2공항 최종보고회 끝내 무산

성산읍추진위 “제2공항 착공·건설에 힘 합쳐야”
반대단체 “무분별한 난개발 막아야” 보고회 봉쇄

국토부가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기로 예정했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이하 최종보고회)’가 무산됐다.

보고회 무산과 관련해 제2공항 찬·반 양측에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두차례의 도민공청회에 이어 국가기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마저 자신들의 주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이들은 “반대측은 국토부와 전문가 그룹들이 수년간 연구와 검토를 하며 내린 결론을 재차 들춰내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뒤

로하고 도민들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건설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민행동 등은 최종보고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농어업인회관 문을 안에서 봉쇄하고 관계자 진입을 막으며 경찰 등과 대치했다.

일부는 국토부 관계자를 둘러싸고 ‘제2공항 왜곡’, ‘제주도민이 우습다’, ‘국토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카메라로 현장 체증을 진행하는 경찰들에게 “체증을 멈추라”며 물과 밀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쯤 국토부 관계자, 경찰 등이 물러나자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국토부와 제주도에 맡겨두지 않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제주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석기자

불체자 고용 농업인 집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일을 시킨 50대 농업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재판에 넘겨진 한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7년 12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국인 장모씨 일당 등 10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용한 사람들이 많지만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물놀이는 빠뜨려야 제맛 19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을 찾은 대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폐유허유로 해양 오염 해경, 어선 기관장 조사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폐유허유로 해양을 오염시킨 제주선적 어선 A호(44t)의 기관장 조모(36)씨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0일 낮 대정읍 산이수동 선착장과 해안가에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상에서 기름띠 방제작업을 벌였다. 또 현장에서 발견한 폐유허유를 수거, 모 수협에서 판매한 윤

활유 용기실명제 스티커를 발견하고 역추적해 어선을 적발했다.

A호는 지난 8일 서귀포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 중 폐유허유통이 원인 미상으로 해상에 떨어지면서 해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 2부두에 입항한 A호 기관장을 상대로 현장조사와 체증을 통해 폐유허유 1.5ℓ를 해상에 유출한 사황을 확인했다.

해경은 2017년부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수협에서 판매되는 유허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유허유 용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보전지역 불법개발·훼손 ‘여전’

제주자치경찰 8건 적발... 2명 구속영장 신청

절·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조정업체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

일 밝혔다.

이중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2만㎡)를 훼손한 조정업체 대표 이모(66)씨와 이를 공모한 대섬 관리체인 소장 김모(61)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서울 소재 A학원에 소유하고 있는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평탄화 작업 후 야자수를 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공모해 이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는 등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씨와 A학원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A학원에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확

인돼 토지 소유주인 A학원은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며 인근 습지·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사 조모(62)씨와 서귀포시 상례동 군산오름 인근 상대보전지역 내 6009㎡ 상당의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김모(73)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무사증 입국 중국인 제주 빠져나가다 덜미

화물차를 통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도외로 나가려던 무사증 입국자 중국인 왕모(41)씨와 손모(30)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발포 조사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18일 오후 제주항 4부두에

서 왕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순씨를 은신시켜 도외로 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전에 무단이탈 계획을 공모하고 왕씨는 자신의 화물차에 순씨를 은신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알선책 등 추가 공범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제10회 광산김씨 남원읍 종친 가족 단합대회

성하의 계절을 맞아 종친 제위의 가내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종친회에서는 종친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애족심 고취를 위한 제10회 광산김씨 남원읍 종친 가족 단합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6월 22일(토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남원읍 실내생활체육관
- 주 최 : 남원읍 종친회
- 주 관 : 남원읍 청년회
- 연락처 : 종친회장 010-2608-4790
청년회장 010-3692-3213

광산김씨 남원읍 종친회
회 장 두 준
청년회장 성 현

그랜드 보청기

호국보훈의 달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샴촌들 혼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 Q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터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관강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 소 날 FRP 페 인 트 총 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